오픈 소스의 역사

목차-

1. 1980년 이전의 자유 소프트웨어

2. 자유 소프트웨어를 억압하는 기업들

3.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

4. 오픈소스

------------------------------------------------------------

1. 1980년 이전의 자유 소프트웨어

1960년대의 소프트웨어는 주로 공동 연구로 일하는 학자나 기업 연구원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다. 소프트웨어는 한 분야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공유, 배포 되었다. 이러한 단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한 예시를 들자면 사용자 그룹 소프트웨어 교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SHARE라고 불리는 IBM 701과 DECUS라고 불리는 DEC이 형성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교환을 단순화 시킨 'ARPANET' 고속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2. 자유 소프트웨어를 억압하는 기업들

1960년대 후반에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밍 언어 컴파일러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생산비용이 하드웨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하드웨어와 함께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회사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제품과 하나의 상품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1976년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당신들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훔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은 과연 공정한가?’와 같은 문구를 실었다. 빌 게이츠는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인 Altair BASIC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AT & T는 초기 버전의 유닉스를 무료 배포했지만, 1980년대 초에 무료 배포를 중지했다. 그들은 유닉스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이선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유닉스를 사용하던 대부분의 연구원은 라이센스에 대해 돈은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IBM도 1983년 발표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배포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상업용 소프트웨어 시대가 시작되고, 기업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소스코드를 배포하지 않고 소스코드에서 컴파일된 실행가능한 머신 코드만 배포하기 시작했다.

3.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

기업들이 점차 소스코드를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여전히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머나 사용자와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리처드 스톨만은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를 통해 수정하고 연구할 수 없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관행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GNU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이런 GNU 프로젝트의 목적과 자유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1985년에 GNU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1895년 비영리기구인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하여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조직하였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무료’ 상태를 유지하는 법적 매커니즘을 확립하고 그것을 GNU General Public 라이선스에 구현했다.

Linux는 리눅스 커널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것은 리누스 토발즈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소스 코드로써 GNU 프로젝트에 부족한 커널을 채워 주었다. 이로써 GNU프로젝트는 리눅스 커널을 통해 최초로 완전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4. 오픈소스

1998년 2월 3일 자유 소프트웨어 리더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의 원시 소스코드를 어떤 형태로 공개하는지를 정하는 전략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오픈소스'란 용어가 새롭게 붙여졌다.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만든 피터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용어의 도입은 신규유입자와 사업가에게 더 잘 이해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도된 노력이었다” 그리고 ”더 넓은 사용자 커뮤니티로 확산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 후 넷스케이프는 소스 코드와 프로그래밍 방법을 개발자들에게 공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모질라(Mozilla)였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다. 심지어 오픈 소스를 비난하던 영리 기업들도 오픈 소스를 도입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지원하고, 자사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와 연동하며 일부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화 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영리 기업들이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서도 만들지 못한 혁신을 오픈소스가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오픈소스는 대세가 되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free_and_open-source_software>

<https://www.slideshare.net/JerryJeong2/ss-58804386>